

## “청동기시대 분묘공간 조성의 다양성 검토”에 대한 토론요지

이동희(순천대학교 박물관)

종래, 청동기시대 분묘에 대한 연구는 취락과의 유기적인 관련성 속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본 발표는 취락과의 연계성 속에서 분묘를 파악하고자 하였기에 청동기시대사회를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유효한 접근 방법이다. 아울러, 남한 전지역을 대상으로 시기별로 개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지역별·계층별 유형화를 통한 심층 분석을 기대한다. 발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한다.

1. 김천 송죽리 유적의 경우, 전기후반과 중기의 주거지 수는 별 차이가 없지만 무덤수에 있어서는 전기 후반(2기)에 비해 중기(17기)에 급증한다. 전기 후반 2기의 지석묘 중 1기(4호)에 대해서는 가장 규모가 큰 주거지와 연결시키고, 취락 지도자의 무덤이면서 동시에 취락을 위한 기념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20여기에 달하는 나머지 주거지 구성원의 무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중기에는 주거 19동과 무덤 16기의 조합상에서 세대당 1명(혹은 2명)씩 무덤에 매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피장자는 세대 구성원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같은 맥락에서, 피장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에는 어떠한 차별성을 상정할 수 있는가?

2. 송죽리 유적의 유력세대공동체로 추정하는 A주거군과 a분묘군을 상호 대응시키고 있다. A주거군이 유력세대공동체라면 다른 세대공동체와 달리 구성원들도 모두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무덤의 수는 다른 주거군과 차이가 없다. 추가장이나 화장을 상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A주거군과 타 주거군과의 차이를 위계차로 볼 수 있는가?

3. 청동기 전기보다 중기에 계층화가 더 진전되었다면, 중기의 증가된 墳墓群內 및 墳墓群間에서 계층화의 척도는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

4.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중기로 갈수록 무덤의 수가 급증하는데 생산력과 인구의 증가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나 장제의 변화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5. 충남지역에서 같은 청동기시대 중기 유적이지만 보령 관창리 유적과 서천 오석리유적은 상당한 차이점이 보인다. 발표자는 서천 오석리 유적은 주거지 13동, 분묘 25기로서 주거 1동에 2사람씩 매장된다고 추정하고 있는 반면에, 관창리취락의 경우 195동의 주거지에 14기만의 분묘군이 조성되어 특정계층만이 취락의 공동묘지에 매장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계층차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바란다.

6. 지역별로 무덤의 종류에 따라 계층성을 달리 파악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전남지역에는 남한지역의 2/3를 상회하는 2만기 정도의 지석묘가 있는데 반해, 다른 지역은 소위 송국리형 묘제와 혼재하면서 지석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같은 지석묘라도 전남지역과 타지역이 동일한 격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별, 묘제 종류별로 상이한 계층성에 대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7. 발표자는 단위 취락과 분묘공간을 대응시키고 있다. 인접하여 단위취락과 분묘공간이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천 이금동유적의 경우 조금 그 양상이 다르다. 비교적 넓은 대지상에 주거공간과 의례공간, 묘역이 일정하게 구분되고 있다. 이는 구릉사면에 소규모 주거, 분묘공간이 있는 진주 안간리나 양산 소토리 유적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사천 이금동 유적은 의례공간과 대규모 묘역을 갖춘 상위의 중심취락으로서, 개별취락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발표자도 주거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였듯이 몇 개 취락이 연합한 묘역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읍락형성기의 상위 중심취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분묘와 취락의 유형 분류도 필요하다.